

# 광주시장·전남지사 상반기 직무수행 '전국 톱3'

이용섭 시장 특·광역시장 중 1위  
시민 59% 긍정·28% 부정 평가  
방역·광주형일자리 등 성과 반영  
김영록 지사 광역단체장 중 2위  
도민 60% 이상 "직무 잘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상반기 6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직무수행평가에서 특·광역시장 중 1위를 차지했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광주시민 전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인 특·광역시(市)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 등이 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 시민 중 상당수가 민선 7기 광주시장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차지해온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이번 평가에서도 전국 시·도지사 중 2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전남도민들로부터

꾸준히 신뢰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1~6월) 전국 시도지사(민선 7기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잘하고 있다" 59%, "잘못하고 있다" 28%를 얻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은 13%였다. 시민들이 평가한 이 시장의 직무 긍정률은 특·광역시에선 1위, 도(道) 단위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 2위인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이어 3위였다.

이 시장은 연령대별 평가에서도 40대 66%, 10~20대 63%, 60대 이상 60%, 30대 56%, 50대 50% 등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의 시민들로부터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성(58%)보다는 여성(61%)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큰 자영업(60%)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를 통해 정부도 인정한 K-방역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한 점이 긍정률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장은 성향별 평가에서도 중도 62%, 보수 59%, 진보 57% 등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화 공장 착공, 인공지능 시대 개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이용섭 광주시장.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광주-대구간 달빛고속철도 확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뤘던 점이 이 시장의 인기 비결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직무수행 평가를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긍정평가는 67%였



김영록 전남지사.

으며, 부정평가는 13%에 불과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4%, 모름이나 응답거절은 15%였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9%로 가장 높은 긍정률을 보였고, 10~20대 68%, 40대 63% 등 모든 연령대에서 60% 이상의 긍정적인 평

가가 나왔다. 부정적인 평가는 30대가 20%로 그나마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9%로 가장 낮았다. 성향별로는 진보 76%, 중도 69%, 보수 59% 등 고르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018년 하반기 59%, 2019년 상반기 65%, 2019년 하반기 65%, 2020년 상반기 71% 등 상승세다.

갤럽은 "김영록 지사의 직무 긍정률은 취임초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직무 긍정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6월(보궐선거를 치른 서울·부산은 5~6월)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912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개 시도별로 ±1.3~8.8%p(광주 ±3.8%p, 전남 ±3.5%p), 응답률은 15%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갤럽은 이번 시도지사 직무평가는 지역별 상황·특수성을 고려해 시도간 비교가 아닌 해당지역 내 추이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재명 "임기내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국토보유세·탄소세로 재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현행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의 첫 단계로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 청년에는 추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로드맵으로는 처음 지급하는 2023년에는 '청년 125만원·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청년 200만원·전 국민 100만원'으로 늘리는 단

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연)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0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대를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재명 27%·윤석열 19%·이낙연 14%

4개 기관 대선 적합도 조사

양자대결 이·이 모두 윤에 이겨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위 이재명 경기지사과 2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27%, 윤 전 총장은 1%포인트 하락한 19%를 각각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20% 선

이 무너지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와 동일한 14%였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4%),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추미애 전 법무장관·유승민 전 의원(2%) 등으로 나타났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 지사(46%)가 윤 전 총장(33%)을 앞섰다. 2주 전 조사(이재명 43% vs 윤석열 33%)에서보다 그 격차가 커졌다. 여론 후보로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는 경우에도 이 전 대표(42%)가 윤 전 총장(34%)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진영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지사 33%, 이

낙연 전 대표 18%, 박용진 의원 4%, 추미애 전 장관·심상정 의원 3%였다.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총장 22%, 홍준표 의원·유승민 전 의원 1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최재형 전 감사원장 6%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3%포인트 올라 5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로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린 28%였다. 정의당은 4%로 나타났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정책준비단 회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정책 준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박근혜 사면론 솔솔...문 대통령 결단 주목

청와대는 "확인해줄 내용 없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청와대는 22일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사면론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행기의 60%를 채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사면을 받

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하지만, 법무부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발에 대한 우려는 비판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가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이번 광복절에 우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번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